

# 충청불교 뭉쳐야 산다

## 지역 포교 구심축 실종... 인재 불사 가장 시급



포교가 미흡하다는 충청불교, 그러나 충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승재가제들의 관심은 뜨겁게 뜨거워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충청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분포돼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꾸준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지만, 충청은 항상 수도권이나 영남과 비교했을 때 지역포교가 미흡한 곳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충청지역 사람들이 지역포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찰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도 개별적인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단지 이런 활동이 지역포교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충남 포교사단 최경대 사무국장은 “대체로 다른 지역은 사암연합회가 조직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충남지역은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 충남의 가장 큰 도시인 대전에 교구본사가 없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지역 활동에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은 벌써 오래전이다.

최경대 사무국장은 “특히 조계종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조계종 교구본사인 마곡사와 수덕사가 있지만, 실제로 이 두 사찰로 인해 수행결집이 이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정황상 무리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대전·충남에서는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타 종단의 활동이 훨씬 두드러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불축행사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대전의 불축행사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성대히 열렸다. 그러나 올해는 도심의 중심에서 벗어난 시민공원에서 개최됐다.

최 사무국장은 “포교사들 역시 포교활동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재단이나 단체들이 없어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포교사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활동해온 포교사들도 그만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포교의 중심축이 될 단체의 설립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나마 충북은 대전·충남에 비해 다소 상황이 나은 편이다. 충북은 대표적으로 육천사암연합회와 보은 법주사의 활동으로 충주, 청주, 청원까지 지역불교가 대체

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충청불교는 아직까지 어느 한 분야도 만족할만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과 포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신행도 수동적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불교계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사찰별·분야별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찰과 개인의 역량이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지역 역시 그동안 문제였던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불교 활성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활동으로 포교활동을 해야 하는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개별 사찰 운영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축성과 불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도 왕성한 편이다. 충남은 옹화사, 연화사, 성불사, 세등선원, 통도사 대전포교원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복지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개신교가 점령했던 복지관 설립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도심에서도 외국인들과 관광객을 위한 템플스테이 사람들이 늘어 도심포교의 역할

## 조계종 대전 활동 부진... 타종단은 활발 충청지역 고령화 심화, 젊은 불자 늘려야

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충북의 활동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충북은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인재 불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안병욱 포교사 단장은 “충북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 되면서 교육 수준이 예전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스님과 신도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다. 불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교육하고 싶어도 인재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또 “현재 군포교, 병원 법당 등을 위주로 포교활동을 진행하며 젊은 불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청불교 활성화를 위해 여러

를 특별히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 대전시청 불자회 등 신행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충북 지역 사암연합회들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음악회, 체육대회 등 각종 지역행사 개최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가는 것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도 이어오고 있다. 법주사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은군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지만 여러 사람들이 불법을 전하기 위한 뜻을 모으고, 활동을 이어간다면 충청불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이은정 기자

# 상업화 경계 강원도

## 템플스테이가 오히려 병... 젊은 불자 없어 더 걱정

강원불교는 한 때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신행, 교육, 포교, 사회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부 사찰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찰들은 살림살이조차 꾸러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강원불교는 점차 달라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덕분이다.

특히 강원도는 자연 경관이 빼어난 사찰들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템플스테이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진행되는 영월 범홍사 1박2일 템플스테이는 인기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템플스테이로 인해 정기적인 관광객 유치로 강원도는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찰 운영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교문화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불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템플스테이가 강원 불교 발전에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지나치게 성행하면서 자칫 불교가 너무 상품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진정한 불법을 알리기보다는 상업적인 이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현재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불교의 사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있다.

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주지 스님이 얼마나 의욕적인지가 관건이다.

명주사 선학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찰에 일정 시설 지원비 등이 나오자 일부 사찰들은 그 돈을 노리고 지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심사요건이 까다로우니 그런 사찰들은 대부분 선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가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인다는 인식은 여전히 있다.

강원불교 포교단 전상용 사무국장은 “강원불교가 템플스테이로 인해 관광지의 역할만 하고, 불교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

성되지 않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상용 사무국장은 “현재 파라미터의 활성화로 청소년 불자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다. 20~30대 불자를 늘리기 위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포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직장인 포교에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역 불교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구가 구축이 되지 않거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갖춘 프로그램이 적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재양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 일부 사찰들은 교육, 포교, 복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차별점이 없어 현상 유지에 급급한 수준이다.

지역불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문화와 자원이 풍부한 강원 불교가 템플스테이 외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강원도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삼척대 교수불자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지역경제 기반이 어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찰과 교수불자를 포함한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 생활에 밀착해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강원 불교는 한국 제일의 불법 지역이 될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 템플스테이가 지역불교 활성화 큰 역할 특별한 불교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야

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들은 국고 지원도 받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템플스테이 사찰로 등록하려는 사찰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템플스테이 사찰로 등록된 곳은 낙산사, 선홍사, 월정사, 범홍사 등 12곳이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사찰로 등록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 과정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최근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치악산 명주사 역시 몇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템플스테이 사찰 등록에 성공했다. 템플스테이 사찰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사무국장은 또 “템플스테이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강원불교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오히려 템플스테이 때문에 강원도에 많이 상행했던 기복신앙도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선학 스님 역시 “독특한 템플스테이가 많은 사찰과 공유돼 발전된다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이 시대에 맞는 불법 포교를 펼칠 수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불교계는 템플스테이보다는 젊은 불자 감소에 더 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충청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역시 고령화 현상이 오면서 젊은 불자들이 많이 형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53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까지(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당사자나 가족들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래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황사 악사요...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튼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